

지역 소식통

정읍시, 평생학습 축제  
행복한 문화도시 '도약'

정읍시는 지난 15일부터 18일 까지 이틀간 연지아트홀 일원에서 제15회 정읍 평생학습 축제와 제7회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도시 정읍을 주제로 진행한 행사는 정읍 시립국악단의 식전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2년간 평생학습을 위해 노력한 기관과 성인 문해교육 우수작품 출품자, 주민자치센터 확대를 위해 활동한 공로자들의 표창과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어 평생학습 동아리 11개 팀과 주민자치프로그램 10개 팀이 발표회를 통해 갈고닦은 솜씨를 마음껏 발휘했다.

또, 연지아트홀 주차장과 광장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23개 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전시·홍보·체험부스가 운영됐으며 가족 단위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이들에게는 다채로운 체험활동의 기회도 제공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일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개최

2022 부안군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오는 20일 부안군청 광장에서 열린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배움이 행복한 부안! 배움으로 행복을 잇다"라는 주제로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24개의 평생학습 기관·단체·동아리의 성과 발표회가 열린다.

또한 전북 성인문해 시화작품 및 부안장애인복지관의 다양한 작품전시회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VR, AR 체험, 드론 체험 등 23개의 다채로운 전시·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 평생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평생학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평화' 국제 아트 페스티벌

정읍시, 회화·조각 등... 세계 54개국 160여 작품 전시

제2회 정읍 국제 아트 페스티벌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진실: 평화의 축'을 주제로 정읍시 생활문화센터(신태인읍 소재)에서 열리고 있다.

국제 아트 페스티벌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농촌지역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계의 평화와 일상의 평화를 다시 찾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세계 예술가들이 바라보는 '평화'의 다양한 모습을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국제 아트 페스티벌'은 지난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이어진다. 전시회에는 엘사 빅토리아스(미국·콜롬비아)와 알폰소 카푸토(이탈리아)



등 총 54개국의 작가 180명이 참여한다. 각국의 예술가들이 평화라는 주제로 회화와 사진, 조각 등 다양한 장르에서 각자만의 의미와 색깔을 녹여내 표현한 작품 160여 점을 엄선해 선보인다.

전시회는 정읍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시간 입장이 가능하다. 전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정읍

시 생활문화센터(063-571-5170) 또는 정읍시청 문화예술포(063-539-5175)로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상대적으로 문화환경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 세계 각국의 여러 미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려 기쁘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예술로서 세계인과 소통하며,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지말장학회가 수탁받아 운영하는 정읍시 생활문화센터는 2017년 개관한 이래 지역민을 위한 생활문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국제 아트 페스티벌은 지난해 4월 서지말장학회와 거제 해금경제마박물관 유경미술관이 문화·예술·교육 등 상호 간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2회째를 맞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수박빵이 1만 세트 판매 돌파를 기념해 고창군에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 "고창군을 대표하는 관광디저트"

임득선 고창 수박빵 대표, 1만세트 판매 기념 이웃돕기 성금 전달

고창 수박빵이 1만 세트 판매 돌파를 기념해 고창군에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고창수박빵 임득선 대표가 최근 고창군청을 방문해 고창수박빵 2,400개(600만원 상당)와 현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임 대표는 공음면 출신 출향인으로 고창의 대표특산물 중 하나인 수박을 본딴 '고창수박빵'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올해 고창북분자와 수박축제에서 첫선을 보인 '수박빵'은 고창수박과 고창북분자를 원료로 한듯한 수박향과 달콤하면서도 촉촉한 앙금이 맛의 조화를 이룬다.

김은계를 활용해 수박씨를 표현하며 먹는 재미와 맛의 고소함을 더했다. 수박빵은 각종 SNS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3개월 만에 1만세트 판매를 돌파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득선 대표는 "고창군 지역발전과 소외계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며 "향후 수박을 주제로 수박와인과 아이스크림 등 여러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창수박빵을 만들고 유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고창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1만세트 판매 때마다 지역에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과 연계된 상품 개발이 성공하고 고창군을 위해 그 수익의 나눔을 함께하는 고마운 마음에 감사드립니다"며, "고창 수박빵이 앞으로 고창군을 대표하는 관광디저트 상품으로 활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탁된 성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창군민에게 전복 사회 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기업 담당제 통한 기업애로 해소 주력 '당부'

이학수 정읍시장, 간부회의서 올바른 분리배출 지도·홍보도 강조

이학수 시장이 기업애로 해소와 민원 해결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17일 오전 열린 영상 간부 회의에서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1기업 1공무원 담당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1기업 1공무원 담당제는 기업에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1:1 매칭하고 직접 기업을 찾아가 건의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수렴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시장은 "공무원 담당제 운영을 활성화해 기업의 의견을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어려운 경우는 부시장 주재로 협의회

의를 진행해 해결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반 플라스틱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제4회 한음페스티벌... 20~22일 무료 공연

부안군이 총 6회에 걸쳐 '제4회 한음 페스티벌'을 부안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무료로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2회(오전 11시, 오후 7시30분)씩 진행될 예정이다. 100명이 넘는 전문오케스트라와 지역오케스트라 그리고 성악가들이 모여 클래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영화 OST뿐만 아니라 부안 주민이 직접 작곡한 창작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공연은 MC 김중석이 사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20일은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소리문화합작소 신이 출연한다.

21일에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 더드림 싱어즈, 부안아리랑오케스트라, 부안군민오케스트라, 테너 류정필, 소프라노 김나영이 출연하고 22일에는 JSM 뉴지컬팀과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출연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2022 방방곡곡 문



화공간 의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부안군의 문화예술 수준 제고와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이 사업은 부안군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음페스티벌은 아동·학생·중·장년층 등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며 "뮤지컬,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연주를 관람해 부안군민 모두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청 민원실, 새 근무복 입고 군민 친절 맞이

민선8기 고창군청 종합민원실 직원들이 통일된 근무복을 입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군민을 맞이한다.

이번 근무복은 자주색 재킷으로, 편안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민원민들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일된 근무복 착용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 종합민원실은 '군민행복시대'에 발맞춰 매주 월·수요일 업무시간 전 민원행정서비스 현장과 주민응대 언어를 낭독하고 있다.

또 모든 민원인에게 대해 친절하고 신속·정확·공정하게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배기영 군 종합민원실장은 "쾌적하고 깨끗한 사무실과 내집같이 편안한 민원실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친절을 생활화해 군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군민행복증시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